



일본 1/4분기 경제성장률 개선 평가

이아름 연구원

■ 2014년 6월 9일 일본 내각부는 2014년 1/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이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전기대비 1.6%(연율화 6.7%) 성장하였다고 발표함.

- 이보다 앞선 2014년 5월 15일 속보치는 1/4분기 일본 경제가 전기대비 1.5%(연율화 5.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0.8%p 상회한 6.7%(연율화)를 기록함.
- 1/4분기 설비투자(수정치)는 2011년 4/4분기(8.3%) 이후 최대로 증가한 7.6%를 기록하였으며 민간소비(수정치)는 0.1%p 상회한 2.2% 증가함.
- 따라서 일본 내각부는 5월 소비자심리를 기존의 ‘약한 움직임’에서 ‘회복’으로 상향 조정함.

■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기업 수익성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와 고용개선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한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¹⁾을 앞둔 일시적인 소비 증가가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노믹스 효과로 일본 경제의 회복 기초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 수익성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및 고용 개선 등으로 2014년 1/4분기 일본 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고 밝힘.
 - WSJ는 2014년 1/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연율화 -1.0%), 유로지역(연율화 0.8%) 등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과 대비된다고 보도함.
- 한편 전문가들은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소비 수요가 집중되어 일시적으로 경제가 2014년 1/4분기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2/4분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 과거 1997년 소비세율 인상을 전후하여 일본 경제성장률이 급변동한 사례가 있음.

1) 2012년 8월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법’을 제정하여 소비세율을 5%에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2단계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1997년 4월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소비세율 3%에서 5%로 인상)으로 증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선수요가 발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소비세율 인상 전 큰 폭으로 증가한 다음 인상 후 감소한 사례가 있었음.
 - 소비세율 인상 이전인 1996년 3/4분기(연율화, 0.1%)부터 소비 선수요가 발생하여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연율화)이 4/4분기 6.1%, 1997년 1/4분기 3.0%을 기록하였지만 2/4분기에는 -3.7%로 급락함.
 - 전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1996년 3/4분기 0.3%, 4/4분기 1.1%, 1997년 1/4분기 2.1%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었지만 1997년 2/4분기에는 -3.5%로 급락함.
- 이 당시 일본 정부는 자산가격 폭락의 영향에서 일본 경제가 벗어나 향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악화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구조개혁법(Financial Structural Reform Act)을 제정하고 총 9조 엔의 긴축재정정책을 시행²⁾하는 정책 실수를 범함.³⁾

■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2014년 2/4분기 수요 위축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나 1997년의 경우와 달리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 급격한 성장세 둔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경제가 민간소비 감소로 2014년 2/4분기에 -3.5%를 기록한 뒤 3/4분기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일본 민간 예측 기관들은 민간소비가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 대응책으로 법인세 감면정책 등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었고,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 가능성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⁵⁾ 등으로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됨.
- 2014년 하반기부터 선진국에 대한 수출 증가와 이러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보완대책⁶⁾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 내각부, WSJ 등)

2) Koo(2008), *The Holy Grail of Macroeconomics: Lessons from Japan's Great Recession*, John Wiley and Sons.

3) 전용식 외(2014),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4) 전문가들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목표치 2.0%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함.

5)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일본 엔화의 달러대비 약세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함. 이에 따라 일본 노동단체와 정부는 엔화 절하 수혜 기업들의 근로자 임금 인상을 주장함. 최근 일본 도요타 등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임금 인상안을 발표함(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2014).

6)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출 확대 등 5.5조 엔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함.